

배포일	2020.5.19.(화)	문의	50주년TF팀 강희경 연구원(031-780-2238) 정책기획팀 진연탁 팀장(031-780-2041)
보도일시	배포즉시		디자인혁신실 윤성원 실장(031-780-2020) 홍보팀 임은지 선임(031-780-2025)

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의 날 기념 '디자인코리아 아카이브전' 개최
- 5월 19일 디자인의 날 맞아 디자인 역할 재조명 -
- 디자인계와 함께 K-디자인 아카이빙을 구축하고자 개인 소장품 릴레이 기증 이벤트 진행 -

- 한국디자인진흥원(원장 윤주현)이 5월 19일 디자인의 날을 기념하여 코리아디자인센터(분당)에서 한국 디자인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 ‘디자인코리아 아카이브전’ 과 디자인계 오피니언리더 ‘간담회’ 를 개최함

디자인코리아 아카이브전	
○ 기간 : 2020. 05. 19(화) ~ 미정	
○ 개방시간 : 월-일 10:00 ~ 17:00	
○ 장소 : 한국디자인진흥원 1층 로비 및 지하1층 전시장	
○ 입장료 : 무료	
‘디자인의 날’ 기념행사(오피니언리더 간담회 등)	
○ 일시 : 2020. 5. 19(화), 10:00~18:00	
○ 장소 : 한국디자인진흥원	
○ 내용 : 디자인 간담회·자문위원회·협의회 진행(각각 진행)	
○ 임직원 및 외부 참석자 약 25명	
DK SHOP 오픈	
○ 일시 : 2020. 5. 19(화)	
○ 장소 : 한국디자인진흥원 1층	
○ 내용 : 글로벌생활명품 및 우수디자인상품(GD) 판매	

- 2020년 창립 50주년(1970년 5월 19일)을 맞이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대규모 행사인 ‘디자인2050 비전선포식’ 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6월 19일로 연기한 대신 디자인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여 함께 ‘K-디자인 아카이빙’ 을 구축하고자 5월 19일,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
- 먼저 5월 19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하는 ‘디자인코리아 아카이브전’ 은 디자인진흥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로 ‘릴레이 기부’ 를 통해 ‘모두가 함께 만드는 디자인 전시’ 를 선보임.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, 디자인 종사자, 일반 관람객 등으로부터 기증 받은 개인 소장품을 함께 채워가는 관람객 참여형 전시임

- 또한 △디자인 출판물 △디자인진흥, 50개 발자취 △Good Design △포스터로 읽는 디자인진흥 50년 등 다양한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한국 디자인사의 발자취를 재미있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앞으로 근현대 디자인 사료를 총망라한 디자인코리아뮤지엄과 함께 한국디자인 발전사를 기록하고, K-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인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
- 전시와 더불어 범(汎)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디자인계 오피니언리더들이 함께 모여 디자인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진행함
- 먼저 대·중견기업 디자인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 공동대처 방안,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 강화, 디자인계 권익보호 등에 대해 논의하고,
 - 원로 디자이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국가 디자인 2050 미래비전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며, 강원·광주·대전·대구·부산지역 디자인 진흥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
 -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모아진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‘디자인2050 미래비전’에 반영하고, 6월 19일 행사를 통해 디자인계와 공유할 예정임
- 한편,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별전 및 간담회와 더불어 DK SHOP(DK숍)을 19일부터 운영함. DK SHOP에서는 국내 중견·중소기업의 우수 생활소비재 상품을 집중 발굴하기 위한 ‘글로벌 생활명품’과 1985년부터 우수한 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우수디자인(GD)상품 선정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상품을 직접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윤주현 원장은 “K-디자인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디자인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5월 19일을 디자인의 날로 기념하고자 한다”며, “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, KIDP뿐만 아니라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K-디자인 아카이브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함